

장흥 영농기 대비 가뭄극복 선제 대응

민·관 협치 가뭄 우려 지역 모니터링 강화

장흥군이 민·관 협치로 가뭄 우려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농기를 대비해 한 발 앞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흥군 2022년 누적 강수량 916mm로 평년 1504mm 대비 61%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수지 저수율은 76%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업용수 부족에 우려가 높다.

이에 장흥군은 가뭄상황 모니터링 강화, 용수절약 및 홍보, 저수지 물가 두기, 조유지(준설) 용수 펌핑, 용수

손실방지를 위한 급수체계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가뭄 대비, 선제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정영농을 위해 가뭄 행동 매뉴얼에 따라 징후감지(관심)단계에서 초기 대응단계(주의, 경계)에 예비격상했다.

영농기 이전에 수리시설 점검을 통해 보수 조치하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영농편의제공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합평,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추진

성수품·식재료 가격 인상 자제·불법행위 지도단속

합평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 가격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합평군은 오는 24일까지 물가안정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임·수산물 등 20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 물가동향 파악, 불공정 상거래 행위 단속 등 현장 활동을 한다.

또 해양·농정·축산·보건 등 분야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요금과다 인상, 담합 행위, 축산물 계량

위반, 농·수산물 매점매석 등 8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합평군은 지난 17일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합평천지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하기,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상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상품 가격 과도한 인상 자제, 착한가격 업소 이용하기,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을 홍보했다.

/합평=김용희 기자

담양, 안전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연휴 기간 코로나 방역·비상 진료체계 구축 설 당일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제한 운영



담양군이 설 연휴를 맞아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교통소통, 물가안정, 재난·재해, 보건진료, 주민불편해소, 관광안내, 가족질병, 공직기강확립 등 10개의 대책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설 연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선별진료소와 더불어 비상진료 상황실과 격리시설 운영,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지정·운영을 통해 명절 기간에도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과 물가 안정대책에도 철저를

기한다.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에서는 연휴 기간 차량 소통상황과 안전운행을 관리하고 물가안정대책반을 통해 성수품 수급과 가격안정,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주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반은 생활 쓰레기 중

점 수거 대책을 추진하고 군립묘원 종합대책반 운영, 상하수도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 당일 죽녹원,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실시시설은 무료 개방하고, 가사문학관, 대나무박물관, 예코센터 등 실내시설은 휴관한다.

아울러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해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질병 차단을 위해 가족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조동방역 조치를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17일에는 이병노 군수가 명절을 앞두고 담양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민생현장을 챙겼다.

/담양=조승재 기자

나주, 벼 경영안정대책비 15억 추가 지원...전액 시비

2ha 한도, 최대 40만원까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나주시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를 위해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농가에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전년 대비 약 12.5% 하락한 쌀 가격(20kg·4만 6817원)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 현실을 감안해 지역 농업단체와 나주시, 시의회 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기로 결정해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관내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생산하는 농가다.

지원금은 농가별 2ha한도 내에서 m(제곱미터)당 20원씩, 규모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난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대상 농가를 기준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0.1ha 미만 벼 재배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주=조성준 기자

영광, 21일~24일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영광군은 21~24일 4일 동안 귀성객과 군민의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매일 당직자를 제외한 64명/8개 반으로 편성된 비상 근무반이 물가 안정, 교통, 비상진료, 급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

이번 설 연휴는 기간이 짧고 설날이 주말과 겹쳐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 근무를 실시해 교통 불편 신고 및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운수회사 종사자에 대해 교통안전 및 서비스 대책, 코로나19 관련 수칙 사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보건소,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를 운영, 응급 환자 치료와 감염병 집단 발생을 대비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비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직의료기관(4개소)과 약국(10개소)도 운영된다.

아울러 22일(설날)을 제외하고 생활 쓰레기를 정산 수거하고, 24시간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상수도 관련 민원 해결, 단수 사고 발생 시 비상급수 및 복구 조치를 지원한다. 설 연휴 종합대책 관련, 분야별 상황실 연락처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총무과 행정팀(061-350-5236)으로 문의.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플로깅 봉사로 청정 화순 품격 지켜



화순군은 지난 18일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플로깅 봉사활동'을 한국부인회화순군지회와 함께 펼쳤다고 밝혔다.

'플로깅'이란 스웨덴어 이삭을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신조어다.

이번 플로깅 봉사활동은 바로은

앱을 이용하여 한국부인회화순군지회 회원 30여명과 추진했다. 봉사자들은 바로은 앱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공유해 운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박희옥 회장은 "운동하며 쓰레기를 줍고 보니 하트 주변 하천이 어느새 깨끗해져 보람찬 하루가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따뜻한 명절 장보기 '전통시장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물가안정·상인 격려

화순군은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역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상인을 격려하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상품을 직접 확인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진행됐다.

이날 구북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김석봉 화순군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정연지 총무위원장, 김지숙의원, 류종욱의원,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 등 유관기관·단체장과 직원들이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을 방문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설을 맞아 모처럼 활기를 띤 전통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네며 격려했으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채수용품과 다양한 농산물을 구입했다.

군의 행사와 함께 박두진 상인회장

과 상인회 임원들도 가격표시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건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이날 장보기 행사로 구입한 물품들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질 좋은 농·특산물과 차례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계묘년 새해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